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5 3

낮은 허물 벗고 하늘 백성 되려는가

지진 재해로부터 만 1 년째인 3 월 11 일을 맞이하였습니다. 1 년간을 이렇게 살아남아서 지금 저는 샌프란시스코 상공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건강을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당시 저는 지진 재해 이후로 이를 감당해내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1 년이 지나고보니 시간의 흐름에 깊은 감개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여기서 끝나도 후회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 지진재해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직관한 것입니다. 1000 년에 한 번 있는 지진재해 속에서 목숨 걸고 헤쳐나갈 각오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그런데 지금 제 자신이 이렇게 지진재해 후의 1 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는 이 여정의 한가운데 서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의 모든 것을 다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년을 마치 10 년간 살아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암에도 걸리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지진 재해를 극복해 온 사람들 모두 수명이 무지러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전에 한 학교에서 지진재해 체험 담을 학생들에게 들려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도 후쿠시마에서 전학 온 학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까지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 터져나와 그만 소리내어 영영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날 갑자기 고향에서 쫓겨나와 선택의 여지도 없이 홀로 전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껏 잘 참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재해 속에서 살아 온 것만으로도 장한 일이지요.

미국 레스토랑에서도 후쿠시마현 하마도오리(福島県浜通り)에 살고 있던 언니가 이번 오오쓰나미(大津波)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었다는 분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조흔의 상처는 너무나도 커서 아득한 바다너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도려 내어 상처 자국을 남겼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도 만약 지진재해 전후로 아무 변함이 없다면 너무 슬플 것입니다.

제 자신, 이 지진재해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했고 될 수 있는 한 잊으려하기도 했으며 말해서는 안되겠다고 제 자신을 다독거리곤 했습니다. 지진 재해로부터 1 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희미해져가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인지,, 지진재해로 목숨을 잃고 천국에 먼저 올라간 분으로 부터 인지,, 그 무언가가 제 마음을

파고드립니다.

언젠가는 눈물도 마르고 잊혀져버리는 날도 오겠지요. 그렇지만 오래전에 성서가 그 시대의 기록을 남겨 후세에 전해주도록 재촉하심 같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출애굽이나 바빌론 포로등의 성서기록을 통해 깨닫게 하심 같이 저희들도 이 지진재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전해야겠다는 사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재해를 전후로 제 경우는 어떠했는가라고, 삶의 태도나 사고방식, 성서를 읽는 자세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 등을 물어보신다면, 과연 어떠한 점이 바뀌었겠는지요.

모처럼 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하게 하셨는데도, 이야기 속에서는 상처 입은 사자의 기백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면 정말 슬플겁니다.

이 기회에 낡은 자신을 벗어 던져버리는 결단을 하고 탈피하도록 합시다. 성서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심 같이 지진재해 속을 통과한 사람으로서 새롭게 다시 태어납시다.

지진재해 후 이렇게 1년째를 맞이하며 슬픔이 소리없이 다가와 감싸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앞 뒤 가리지 않고 달렸던 초라한 모습의 상처자욱과 그 때는 느낄 여유조차 없이 스쳐지난 굵긴 자욱들이 이제서야 육신거립니다. 예전에 모세는 애굽을 탈출한 후에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민수기 11장 15절)** 라고 외쳤습니다. 인간의 한계점을 넘은 여정이 계속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언자 엘리야도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마치고는 도망친 곳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열왕기 19장 4절)**

올해 3월 11일은 주일이자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 날은 아침부터 지진재해 기념 예배와 지진재해 세미나로 이어지는 저녁 집회를 마치고 Philip Yancey 와의 잡지 대담을 가진 후에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밤 10시가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길치인 저는 무심코 전철을 잘못타게 되었고 게다가 전철 안에서 폭 잠이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호텔에

도착한 시각이 새벽 0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인 12일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침 7시 40분이었습니다. 이 날은 8시까지 미션스쿨에 가야 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후다닥 일어나서 10분 정도로 준비를 마치고 호텔을 뛰어나왔습니다. 어쨌든 예정대로 강연을 할 수 있었지만 식은 땀을 흘리며 지진 재해후에도 변함없는 제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지진 재해 2년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지진 재해를 통과했음에도 아무런 변함이 없는 것인지,,,

그렇지만 이 정도로 바쁜 쪽이 좋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픔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 슬펐던 일이나 괴로웠던 일들을 그 날 그 날 뛰어나가며 차올린 휴먼지에 적절히 얼버무려져 단숨에 그 날들을 앞지르는 것이지요. 달린 길을 돌아보며 오히려 이것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착하는 정보와 혼잡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쫓아가서는 매달립니다. 마치 미아가 어머니를 찾으면 옆도 보지 않고 쓴살같이 달려 드는 것 같이 저도 눈앞에 벌어진 지진재해 여정을 뛰어넘어 앞질러 보고 싶습니다.

이 일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희 여정의 이곳 저곳에서 다정하게 다가와 예전에 없었던 길을 밝혀주시며 하나님께로 곧장 달려와 안기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성서에 쓰여진 저 방탕한 아들과도 같이 모두가 그곳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을까 이제나 저제나 가슴 조이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 작년에도 고향에서 부화한 치어가 크게 자라 혼신의 힘을 다해 고향강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 연어가 다시 후쿠시마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모두가 그곳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여행은 고향 후쿠시마를 넘어 하늘 고향을 향해 오르는 천로역정인지요?
이 길은 지상에서의 모든 것을 벗고 천상인이 되는 지상 나그네 길의 특별코스인지요?

여름이 되면 껍질을 벗고 완전히 탈피한 매미들이 일제히 전신을 흔들며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결단의 탈피를 하고 천상인이 되어 간증의 찬송을 온 몸과 마음으로 연주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들의 이 찬송은 올 여름이 되겠는지요?

(3월 13일 샌프란시스코 상공에서 사토 아키라(佐藤彰))

대만에서 미리 생일축하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 기쁜 뉴스가 있습니다. 만 일년째인 지진재해 날인 3월 11일(일)에 맞춰서 ‘속·유랑의 교회’가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작년 지진재해 때 바로 출판해 주신 ‘유랑의 교회’ 속편입니다. 전 표지는 빨간색 문자로 원전과 십자가로 디자인했는데 이번 속편의 표지는 녹색 문자로 고향을 향해서 날개를 펴고 날아 오르는 9월에 완성될 예정인 새 교회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매출의 일부는 피해지역 교회에 기부됩니다.

이 책을 읽어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지진재해를 잊지 않고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로 느껴집니다.

지진재해로부터 일년이 지나면서 급속히 사람들의 관심이 희미해지고 있는 중에 그 당시 저희들은 양날갯죽지가 잘려진 새처럼 기가 꺾여 얼마나 많이 떨고 있었는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게 되었는지를 저희들 입장에서 이해해주시는 것이 저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과 여러분들로부터 얼마나 따뜻한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를 아시고 같은 마음으로 기뻐해 주시는 것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왠지 모르게 그 날 저는 오늘 기록하지 않으면 내일이 오면 이미 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권하며 제 등을 떠밀고 있는 것 같은, 마치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이 지진재해 일기를 계속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대부분의 이상한 스토리가 생겼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리를 방황하던, 격동의 날이 시작된 후로 설마 이렇듯 일년의 긴 유랑여행으로 이어져, 1년후에는 아파트와 교회건축에 몰두하게 될줄은 결코 생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 지진재해의 일기장과 각지에서 가진 지진재해 강연회 메시지 그리고 저희의 여정을 보살펴주신 생명의 은인이신 여러분들의 증언과 여러 분의 간증집을 모아보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올 3월 7일에 두란노 출판사에서 ‘기적의 무대가 된 교회’란 제목으로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만약 한국에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기에 소개한 ‘속·유랑의 교회’ 출판에 맞춰서 ‘새로운 여행길에 오름’이 신장재판되었습니다. ‘새로운 여행길에 오름’ 출판에 대한 머리말은 이하에 기재하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7일 샌프란시스코 호텔에서)

‘새로운 여행길에 오름’ 머리말

예전에 후쿠시마 제 1 성서 침례 교회에서의 메시지를 교회의 한 자매가 요약해서 매주 주보에 실었습니다. 그 중에 몇 부를 정리해서 출판했던 '새로운 여행길에 오름'을 이번에 활자를 크게 해서 읽기 쉽도록 하여 재판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했던 교회는 지난 3월 11일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 재해 이후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새로운 여행길은 우리들에게야말로 필요합니다. 돌연 습격해 온 지진과 해일 거기에 또 다시 계속되는 원전사고는 한순간에 우리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들은 그 날로부터 9 개월이나 지났는데도 고개를 떨군채 어찌할 바 모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여행길을 필요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래 전에 출판된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되풀이해서 애독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언제입니까'등의 고마운 말을 듣고는 이 책을 다시 읽어 보니 옛부터 우리에게 주신 성서 말씀이 새롭게, 슬픔에 젖은 저희에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정리하기 어려운 제 메시지의 포인트를 이렇게 간결하게 잘 정리해주신 교회 자매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시절 당연하게 생각했던 교회의 성장이 꿈 같기만 하며 사랑스럽고 그리워집니다.

교회가 갈래 갈래 흩트려진 후로는 두번 다시 같은 멤버가 모일 수는 없었지만, 신약 성서 시대에 흩어진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크나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 많은 곤경을 극복하며 새로운 여행길이 되풀이 되어온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주어진 여정의 한걸음 한걸음을 힘껏 밟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뇌에 찬 인생의 도정에서 하늘을 우러르며 기죽지 않고 전진하려는 용기있는 모든 분께 이책을 보냅니다.

2011 년 12 월 11 일(일) 신칸센에서

사토 아키라(佐藤彰)

<http://f1church.com/f1keitai/>